

올해 독서 키워드는 '꿈'

베스트셀러 트렌드 분석

'달리구트 꿈 백화점' 1위

판타지소설·재테크 서적 인기

'종의 기원'·'7년의 밤' 역주행



꿈을 꾸고 싶었을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길고 긴 우울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꿈을 떠올렸다. 꿈만이 오늘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꿈이 있는 한 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2년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은 일상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독서 출판 시장에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꿈'을 꿔다. 더 이상 꿈이 없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을 청춘이라 할 수 없는 것과 무관치 않을 터다.

올해 최고 베스트셀러는 이미 작가의 '달리구트 꿈 백화점'. 예스 24와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분석에서 '달리구트 꿈 백화점'은 1위를 차지했다. 지친 일상에 희망과 긍정을 선물한다는 내용이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소설은 '무의식에서만 존재하는 꿈을 정말 사고 팔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소재로 연결됐다.

꿈 백화점에는 긴 잠을 자는 사람, 짧은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여기에는 주인공 '달리구트', 그리고 신참 직원 '페니', 꿈을 만드는 제작자 '아가넵 코코', 그리고 베일에 둘러싸인 '비고 마이어스' 등이 등장하며, 저마다 꿈을 매개로 다양한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예스24에 따르면 '달리구트 꿈 백화점'은 작년 7월 출간 이후 50주 이상 종합베스트 셀러 10위권에 머물렀다. 두 번째 이야기 '달리구트 꿈 백화점 2' 역시 올 하반기 출간 직후 9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켰다.

교보문고에서도 '달리구트 꿈 백화점'은 연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으며 1권과 2권의 판매 부수가 2020년대 들어 첫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됐다. 책이 주는 매력은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현실이 고달프고 힘겨울수록 꿈을 꾸고, 꿈을 통해 다시 내일의 희망을 견지한다는 의미를 환기한다.

판타지를 그린 소설은 고스란히 판매를 성장으로 이어졌다. 죽기 직전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그린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도 꾸준히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저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동화작가인 매트 헤이그로, 그는 동화 같은 상상으로 이야기를 펼쳐낸다.

'하지만 위대한 일들' 작가 조디 피코는 이 책에 대해 "아름다운 우화, 영화 '멋진 인생'의 현대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에 갇혀버린 지금, 우리 모두에게 시의적절하다"고 평한다.

언급한 대로 올해는 판타지 소설이 116.6%(교보문고) 상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국소설 신

장물이 187.7%로 눈에 띄었다.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는 오늘의 상황에서 독자들은 판타지를 통해 잠시나마 휴식과 위안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재테크 관련 서적 또한 올해 독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세대를 불문하고 경제 관련 서적에 눈을 돌리게 했다는 분석이다.

예스24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투자, 재테크 관련 서적에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TOP 77', '부자 아바 가난한 아바 20주년 특별 기념판', '돈의 속성'이 순위에 올랐다. 특히 구매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각각 30.7%, 37.1%를 기록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보문고 집계에서도 재테크 도서는 코로나19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로 나왔다. 역설적으로 경제난이 경제 경영 분야 책을 찾게 했다는 의미다. '서른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 '디지털 화폐가 끄는 돈의 미래' 등이 인기를 끌었다.

TV드라마 영화 원작의 도서도 관심을 받았다.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나빌레라'의 원작 웹툰을 도서화한 '나빌레라', 드라마 '홍천기'의 원작 소설 '홍천기'가 미디어 방영일을 기점으로 각각 198.9%, 243.9%(예스 24) 상승률을 기록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원태연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TV에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독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TV출연을 통해 정유정 작가의 '종의 기원', '7년의 밤'이 역주행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정순애 시인 '비' 소재로 '바람에 흔들리고...' 출간

"비 오는 거리를 걷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인다. 빗방울 속에도 저마다 아우성이 마주하고 있다. 한 쪽 눈을 슬며시 감으며 어깨에 매달린 친구를 안는다. 등직한 그를 보면 만지작거리 손놀림이 바쁘지만 하다. 설렘 가득한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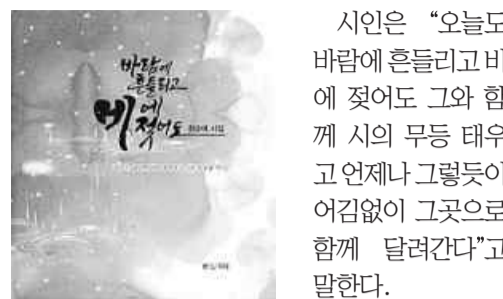
정순애 시인이 시집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그린기획)를 펴냈다.

이번 시집은 순수한 감성과 감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굴절된 삶의 형태를 표현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삶의 길을 잃고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표현하고자 '비'라는 매개체를 활용했다.

작품은 모두 '비'를 모티브로 했기에 비와 관련된 표현과 심상이 드러난다. 비는 행진곡 같기도 하고, 세레나데 같기도 하며, 따스한 위로의 말 같기도 하다. 각각의 시에는 작품과 어울리는 사진 작품이 담겨 있어 읽고 보는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토오록 툇 툇 툇/ 어딘가에 머무르지 모를 그림자 뒤에 숨어/ 찢긴 속울음으로/ 울어 주는 몸짓 마냥 곧기만 하다// 떨어지는 아픈만큼 맘 녹아내려/ 지쳐 버거운 갈증마저 일으켜 세운 당신"(비와 동행 중에서)

작품 '비와 동행'은 외부적으로 비를 그리고 있지만 실상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시련과 아픔을 이야기한다. 비에 젖은 대상이 '흐르는 사연'으로 상징화되는 것은 인생길에 만나는 다양한 아픔으로 대상화된다.



시인은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그와 함께 시의 무등 태우고 언젠가 그렇듯이 어김없이 그곳으로 함께 달려간다"고 말한다.

한편 박정은 한실 문예창작 지도교수는 "아주 작은 잎새와 한마음 되어 사색에 잠기는 화자, 그 섬세한 감성이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고 평한다.

한편 시집 출간을 기념하는 사진전은 세계조각장식박물관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정 시인은 2011 '문학공간'으로 등단했으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공예사진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비'

"홍비·홍시 남매와 구름빵 만들어요"

'동요콘서트 구름빵2' 내년 3월6일까지 동산아트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가족뮤지컬 '동요콘서트 구름빵2' (2022년 3월 6일까지)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매주 금·토·일요일 펼쳐진다.

'동요콘서트 구름빵 시즌2'는 인기리에 방영된 KBS1 애니메이션 '구름빵'을 원작으로 기획된 작품이다. 사랑스러운 홍비, 홍시 남매가 빵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일터로 향한 엄마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되짚어보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표 테마송 '우리도 두둥실 하늘을 날아요', '신나는 구름빵 여행'을 비롯해 '간다간다', '남남', '작은 동물원', '하늘에서 살지요' 등은 재미를 더하며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쾌한 율동도 함께 선보인다. 아울러 아빠와 함께 구름빵을 만드는 홍비, 홍시의 모습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손유희로 선보이는 반죽체험, 의성어, 의태어로 들려주는 빵 만드는 과정은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한편 유·스퀘어 문화관은 동산아트홀을 가족뮤지컬 상설전용관으로서 광주·전남 청소년 및 어린



'동요콘서트 구름빵 시즌2'

이들을 위한 새로운 공연놀이문화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름빵 시즌2 이후에는 해양환경뮤지컬 '플라스틱 몬스터' 등이 예정되어 있다.

관람료 2만5000원. 문의 0507-1397-331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내년 찾아가는 인문학 300회 진행

문체부·교육부,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 발표

내년에는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300회, 여행길 인문학 60회 등 인문학을 통한 치유와 일상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열고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 계획은 인문까지 발전 및 공유, 인문 가치 구현 및 확산,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강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5년(22년~26년) 간 인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먼저 인문 가치 발전 및 공유는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거점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내년에는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300회, 여행길 인문학 60회 등 인문학 매개로 치유와 일상 회복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한 공동체 갈등 극복을 주제로 인문 프로그램을 내년 24개소에서 운영하며,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인문 활동도 지원한다.

특히 주민과 예술가의 시선으로 '코로나 19' 기

획과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일상 속 다양한 공연과 전시 향유도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인문 가치 구현 및 확산은 문화시설을 인문정신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둔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생활문화센터 등 인문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인문 분야 연구원과 문화기반 시설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심화 인문 강좌 지혜학교'를 2022년 150개 운영하고, 길 위의 인문학 등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강화는 디지털 인문정신문화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당배리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로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리리)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한국기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송가네 반찬

광주 남구 백운로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